

제 2 부

## 협동학습으로 토의 · 토론 준비하기

3장

### 협동학습에 대한 이해

1. 협동학습에 대한 기본 이해
2.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한 열 가지 열쇠

4장

### 협동학습으로 토의 · 토론 준비하기

1. 만남과 설렘과 난관, 그리고 교훈
2. '협동학습으로 토의 · 토론하기' 를 위한 준비





평범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말을 한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다.

뛰어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몸으로 시범을 보인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토의·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 03 장

## 협동학습에 대한 이해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협동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 현장 안에서는 협동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협동학습, 껍데기뿐인 협동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협동학습에 대한 모든 것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추리고 또 추려서 안내해 보고자 한다. 협동학습에 대한 철학적·학문적·실제적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하는 협동학습 서적을 읽어 보기 바란다.<sup>1</sup>



<sup>1</sup> 살아있는 협동학습(이상우, 2009); 협동학습과 탐구(이종일 외, 2008); 협동학습(Kagan, 1999);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정문성, 2002)



## 1 협동학습에 대한 기본 이해

협동학습은 학생들 간의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학습 구조의 한 가지로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4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의 활동을 시키면 협동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믿고 있는 정도의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협동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협동학습은 모둠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는 점,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 개인적인 책임이 매우 강조된다는 점,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 과정 및 결과 모두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다른 학습 구조와 구별된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는 1부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 1.1 협동학습의 중요성

사람들은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지식의 습득)해 나간다. 협동학습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도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한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고츠키가 말하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협동학습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언어의 습득과 인지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한 개인의 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내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개인 내부의 인지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인지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협동학습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하거나 학생들의 협동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생 개개인이 개인적 책무성을 소홀히 한다가 개인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협동학습을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협동학습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학습 구조라는 것, 그래서 신중한 접근과 적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 1.2 협동학습의 바른 적용을 위해 살펴야 할 필수 요소

협동학습을 처음 접한 교사들은 협동학습의 매력에 쉽게 빠져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협동학습 구조(창문 열기, 3단계 인터뷰 등)라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처음 시작한 Kagan은 구조를 모형이라 불렀다)을 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 방법의 갈증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연수였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수업 기법(수업 방법)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 막상 실천해 나가려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도전과 압박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게 아니면 그냥 모둠을 구성하고 형식적으로만(협동학습 구조가 갖고 있는 절차적 틀) 적용해 나가면서 협동학습을 한다고 말하거나, 거의 모든 수업을 협동학습으로 해 보려고 하는 모습 또는 그 반대의 모습(어쩌다가 한두 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 가 협동학습의 적용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살핀다.

협동학습은 모든 교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동학습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 구조(개별식, 경쟁식, 강의식 구조)나 수업 모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학습으로만 수업을 해 보려 하는 것은 협동학습을 위한 협동학습일 뿐이다. 협동학습은 다른 학습 구조나 수업 모형에 비하여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에 협동적 상호작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나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을 통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

**나** 학급 환경이나 분위기가 협동학습에 적합한지를 살핀다.

협동학습의 밑바탕에는 상호존중과 신뢰가 깔려 있다. 그런데 학급 환경이나 분위기가 경쟁적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그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은 무늬만 협동학습일 가능성이 크다. 협동과 경쟁은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급운영의 목표 자체를 ‘협동’이라는 것에 두고 교실의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그에 맞게 가져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다** 여유를 가지고 협동학습을 운영하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대체로 협동학습에 익숙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교사도 경쟁적 상황 속에서 잘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이고, 학생들도 지금까지 경쟁적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협동적인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교사가 단순히 협동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쉽게 따를 것이라 믿는 교사가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먼저 “우리 사회는 협동사회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교육 및 학급운영에 대한 철학과 목표를 그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익숙하지 않은 협동학습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쉬운 구조나 모형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 그와 함께 학년 초기부터 사회적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학생과 교사가 모두 깨닫고 이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라** 교사가 협동학습 전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수업이든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의 전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끔 보면 “협동학습을 하면 교사가 너무 편해요.”라고 말하고 다니는 교사들이 있다. 필자가 10년 가까이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오면서 하루도 편한 기억은 없었다. 교사가 너무 편하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해 놓고 방관하다시피 수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업무나 다른 일을 해 나가거나 하면서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서는 협동학습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것은 협동학습이 아니다.

제대로 된 협동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활동에 대한 그림을 충분히 그려 놓고, 어떤 단계에, 어떤 곳에서 적절한 안내와 지도·개입이 필요한지를 계획하고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평가·피드백해 나가야만 한다.

**마** 내용(단원, 차시, 주제, 학습 목표 등)이 학생들 간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끔 보면 협동학습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협동학습을 해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협동학습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반드시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워 익히고 알게 된 것이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인지적인 면이나 정의적인 면에서)가 일어나야만 제대로 된 협동학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꼭 협동학습에 담아야 할 것인가?, 협동학습에 담기 좋은 내용인가?”를 먼저 살피고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

**바** 시간적 융통성을 갖는다.

협동학습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구조 중심 협동학습과 모형 중심 협동학습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구조 중심 협동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과서 내용이나 수업 시간의 융통성, 교육 과정의 중앙 집권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동학습 모형의 적용을 통한 활동이 쉽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반면, 구조 중심 협동학습은 수업 시간 40분 가운데 10분 혹은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10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구조가 개발·보급되어 있어서 교수-학습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조 중심 협동학습이 40분 안에 끝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동학습은 분명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두 차시 이상 운영해 나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필자는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럴 경우 대부분은 한두 차시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 책에서 논하고자 하는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도 여기에서 말한 여섯 가지(토의·토론 수업에서 협동학습의 필요성,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학습의 모든 분위기, 토의·

토론 수업을 위한 여유, 토의·토론 수업 전 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전문성, 학습 주제나 문제가 토의·토론 활동을 꼭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교사의 판단과 확신,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시간적 융통성) 요소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여섯 가지 요소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훌륭한 협동학습, 훌륭한 토의·토론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참고

#### 필자가 걱정하는 것 한 가지

이 글을 쓰면서도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협동학습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확한 이해와 지식도 없이 뒤에서 전개되는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의 실제 사례만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학습은 그런 분들에게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이다. 어떤 학문이 쉽게 자신의 자리를 내준다면 그것은 학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부디 협동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바라봐 줄 것, 부족하다면 협동학습 공부를 먼저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1.3 학급운영과 협동학습, 그리고 토의·토론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를 논하면서 왜 학급운영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 가면서 제시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가** 협동학습에서 말하는 ‘협동’은 수단이나 방법일 수 없다.

협동학습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협동학습을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이라는 것이 결코 수단이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무의미해지는데, ‘협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협동’이라는 것은 원리이자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히 말하고 싶다.

**나** ‘협동’이라는 것이 원리이자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면 교실 속에서 그 의미가 실현되는 과정이 곧 학급운영인 것이다.

학급운영에는 교사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과 목표가 존재한다. 협동학습은 분명히 그와 궁합이 맞아야 한다. “최고가 되라!”는 식의 1등 지상주의를 꿈꾸는 교실에서 ‘협동’이라는 철학과 ‘협동학습’이 제대로 실현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협동학습도 학급운영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에 충분히 동의할 만하지 않겠는가.

**다** 협동학습은 학급운영론임에 틀림이 없다.

학급운영 차원에서 협동학습을 바라본다면 학급운영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볼 때 ‘협동적 학급운영’을 상위 개념으로 놓고 이를 ‘시스템 학급운영’이라 이름 붙인다면, 협동적 학급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학급운영 시스템은 곧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sup>2</sup>

**라** 학급운영 속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존재한다.

보통 학급운영이라 말하면 행사나 생활지도 등을 먼저 떠올린다. 그에 반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1순위로 떠올리는 교사는 거의 없다. 그 지점에서 학급운영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학급운영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학급 활동(수업 이외의 모든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학습 활동’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나가야만 비로소 학급운영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업도 학급운영 속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인 것이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살아있는 협동학습』(이상우, 2009)에 안내되어 있다.

**마** 통합적 학급운영이 필요하다.

학급운영의 두 가지 축인 학급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을 별개의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으로, 학급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급 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두 개의 축이 학급 운영 목표라는 큰 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학급 활동과 객관적 지식의 암기 및 경쟁적 활동과 줄 세우기식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이 동시에 공존하는 학급이나 교수-학습 활동과 학급 활동을 별개의 것으로 놓고 따로 구분 지으려는 학급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의 통합적 학급운영(진정한 협동적 학급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바** 통합적 학급운영의 목표가 ‘협동 — 다 함께 잘 살기’여야 한다.

교사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학급운영 목표가 존재한다. 그 목표가 ‘협동’이라는 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협동학습(협동적 학급운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학급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 모두가 ‘협동 — 다 함께 잘 살기’라는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 ‘토의·토론’도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토의·토론 활동이나 수업은 토의·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분명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의·토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의·토론 활동은 그 자체가 가진 교육적 목표 및 효과나 학문적 바탕을 근거로 바라볼 때 교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협동학습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면에서도 이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협동학습 구조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사들이 협동학습 구조만 바라보고 협동학습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구조는 협동학습이라는 학문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그 구조들은 협동적으로 학급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구조만 가지고 학급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 구조만을 바라보고, 구조만을 적용하면서 협동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코 협동학

습이라 말할 수 없는 일이다).



##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한 열 가지 열쇠

토의·토론 수업도 학급운영 과정 중 하나(수업은 학급운영의 커다란 축)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토의·토론 활동 자체도 협동적 학급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의·토론 활동이 협동적 학급운영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 열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열쇠 ① : 교사의 철학

진정한 협동적 학급운영을 원한다면 교사 자신부터 ‘협동’이라는 낱말 속에 담긴 철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삶의 전 과정을 통해 그 자세를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세상을 경쟁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협동적 학급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 협동적 자세와 마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교사 자신’이라는 필자의 견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토의·토론 수업에도 교사의 철학은 필요하다. 단순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찬반으로 나누어 논쟁을 벌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토의·토론 수업은 유목적적이기도 하지만, 그 활동 안에서 분명히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이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협동’이라는 철학은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큰 거부감이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살아있는 협동학습』(이상우, 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기에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열쇠 ② : 학급운영의 목표 — 다 함께 잘 살기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목표를 가장 먼저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목표를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내용)을, 왜(철학과 목표), 어떻게(방법)’라 할 때, 목표를 먼저 세워야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적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방법적 고민을 제일 나중에 하게 된다. 그리고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볼 때, 위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난 뒤 그에 따르는 교사 자신만의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세워 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토의·토론 수업에 꼭 필요한 철학적 바탕이 ‘협동’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이를 ‘다 함께 잘 살기’라고 정해 놓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 다시 말해서 토의·토론 수업에서 내려지는 결론이나 대안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로 인해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비록 수업 활동이기는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곧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만 철학이 있는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급운영 목표를 향하여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



### 열쇠 ③ : 학급운영에 대한 통합적 시각

철학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하여 협동적 학급운영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해서는 앞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학급운영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을 중심에 두지 못하면 학급 활동 목표 따로, 교수-학습 목표 따로 갖게 되면서 학급운영의 커다란 두 축이 서로 따로 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학급 활동은 ‘협동’을 추구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은 개인별·모둠별 ‘경쟁’을 부

추기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따라 학급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이 일관성 있게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학급운영을 잘하는 교사가 수업을 잘하는 교사,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학급운영을 잘하는 교사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토의·토론 활동은 그 나름대로의 활동에 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수업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수업 활동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교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단순히 학급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한 재료(갈등은 곧 교육의 기회)로 삼아 수업 목표를 뽑아낸 뒤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극복해 나가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수업 활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학급 활동(예를 들자면 학급회의)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급운영을 해 나간다면 통합적 학급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 속에서 토의·토론 활동은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 열쇠 4 : 학습 구조에 대한 이해




수업=내용+구조

(내용=수업을 위한 재료, 구조=재료를 담는 그릇)

- 수업 : 학습내용과 학습 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련의 활동
- 구조 :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관계방식의 틀
- 목표 동기에 따른 구조의 분류 : 개별식 구조, 경쟁식 구조, 협동식 구조, 일제식 구조(상호작용의 주체를 교사도 포함시킬 경우)
- Kagan이 말하는 구조 : 협동학습 수업 기법들을 협동학습 구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협동학습 구조를 분석해 보면 구조를 이루는 3요소(혼자, 짝, 3인 이상의 그룹)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조’를 ‘그릇’에 비유한 이유는 그릇마다 나름의 용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구조’라는 것도 적절한 목적과 용도(알맞은 사용처와 시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접시에 국을 담아 먹을 수는 있지만 접시는 국이라는 내용물을 담기에 적절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본다면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강의식 구조는 그 나름대로 담기에 좋은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Kagan이 말하는 협동학습 구조(3단계 인터뷰, 창문 열기, 돌아가며 말하기 등) 또한 그 구조에 담기 좋은(그 구조로 활동하기에 알맞은)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구조가 갖고 있는 목적과 특성을 잘 파악해야 협동학습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토론이라는 활동 때문에 경쟁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쉽겠지만, 토론 활동도 궁극적으로는 ‘협동적 목표 동기에 의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협동적 자세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토의·토론 수업을 학습 구조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협동식 구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토의와 토론 활동 모두 기본적으로는 팀원들끼리의 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 **열쇠 ⑤ : 협동학습의 네 가지 기본 원리**

하나 : 긍정적인 상호의존(너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은 곧 너와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

둘 : 개인적인 책임(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진다!)

셋 :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다 같이,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넷 : 동등한 참여(우리 모두 다 같이 참여해요!)

 토의·토론 수업은 협동학습의 네 가지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바라볼 때 그 원리들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 열쇠 ⑥ : 모둠에 대한 인식과 운영을 위한 노하우


협동적 학급운영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본 운영은 학급운영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모둠' 운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교사 자신은 모둠에 대한 철학적 인식(기본적으로 모둠 간 경쟁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모둠 구성 및 다양한 형태의 모둠 운영 능력(협동적 학급운영에 있어서 모둠 활동의 중심은 학급 활동보다는 협동학습 구조의 적용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학급 활동 속에서도 협동학습 구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운영의 모든 활동을 구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토의·토론 수업은 모둠(팀)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토의·토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숙고해서 모둠이나 팀을 구성하고, 수많은 활동들이 모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구조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끊임 없는 지도와 반복적 훈련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활동들이 학급이라는 큰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경쟁적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 ★ 열쇠 ⑦ : 협동하려는 마음(모둠세우기, 학급세우기)

협동적으로 학급운영을 해 나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 자체가 협동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가운데는 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고 해도 협동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협동학습을 위한 협동학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적, 공동체 의식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학급세우기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학급 구성원들의 구체적 삶(다양한 학급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둠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긍정적 상호의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도와 가며 의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사회적 기술 등)을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둠세우기 활동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 활동 모두 어느 한 시점에서만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급이 구성된 이후 학년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둠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순간까지도 꾸준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활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토의·토론 수업도 모둠(팀)원들끼리 혹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팀이 갈려서 활동을 하더라도 작게는 모둠이라는 조직의 일원이기도 하면서 크게는 학급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팀원들끼리의 단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학급이라는 큰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토의·토론 활동을 하더라도 모둠(팀)원들끼리의 정체성을 충분히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활동 과정이나 결과로 인하여 학급 내의 공동체의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지도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어떤 순간에도 ‘수업활동’이라는 사실 또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 열쇠 ⑧ : 사회적 기술 — 다 함께 잘 사는 기술

학급과 모둠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서로 간의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규칙 혹은 약속에 따르는 행동양식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이 기술을 잘 갖추고 있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기술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리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고 가르쳐도 학급 구석구석에는 편가름과 폭력, 시기와 질투, 무책임과 무관심, 싸움과 증오의 불씨들이 활활 타오르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가르쳐도 변화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만 한다. 그게 바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꿈꾸는 교육자적 소임인 것이다.

 토의·토론 수업 또한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존중감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술(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토의·토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기, ㉡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 틀린 의견과 다른 의견을 구분하기, ㉣ 사람과 의견을 구분하여 말하는



자세)의 지도는 필수라 할 수 있으며, 토의·토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갈등 해결 기술<sup>4)</sup> 또한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열쇠 9 : 교사의 사회적 기술 — ‘적극적 듣기’와 ‘나 메시지’ 전달하기

앞서서도 교실에서 사회적 기술이 가장 떨어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교사 자신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꼽으라면 필자는 망설임 없이 ‘적극적 듣기’ 기술과 ‘나 메시지’ 전달하기 기술이라고 말한다.

#### ‘적극적 듣기’를 위한 요령<sup>5)</sup>

1단계	학생의 감정과 얼굴 표정, 행동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을 듣는다.
2단계	교사는 학생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통해 학생의 현재 감정 상태를 읽고, 학생이 그런 감정 상태를 갖게 된 원인과 이유를 파악한 대로 말한다.
3단계	교사가 학생의 현재 감정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sup>6)</sup>


1단계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다.
2단계	관찰한 결과로 자신이 갖게 된 느낌,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3단계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한다.
4단계	상대방에게 부탁한다.



4 이 책의 pp. 291~131 참고.


5 Thomas Gordon, 2003, pp. 99~119.

6 Marshall B. Rosenberg, 2004,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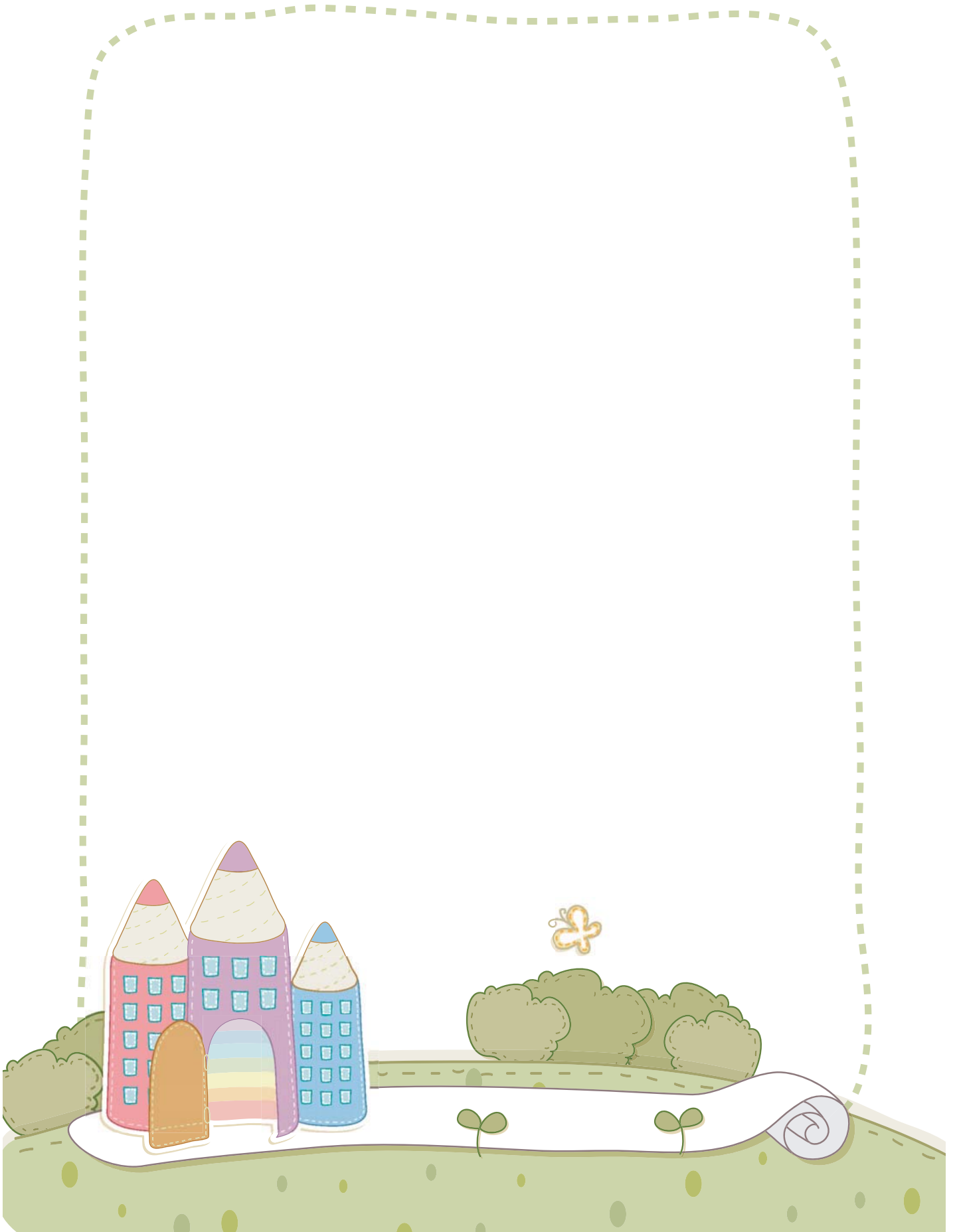
 토의·토론 수업에서 활동의 중심은 물론 학생들이어야 하지만 교사 또한 활동 중심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주도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 나감과 동시에 중요한 조정자, 중재자, 심판관 역할을 해 나가지 않으면 바람직한 모습의 토의·토론 수업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단계여서 활동의 중심을 잡아 주고 엇나간 부분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또래들보다는 활동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즉 교사)이 활동에 대한 나름의 조정과 중재, 판단을 해주면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고민·반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가 어떤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이 고민해서 만든 해결방안이나 주장들이 교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그건 아니지." 또는 "땡! 틀렸어!"라는 반응을 바로 보이게 되면 학생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곧바로 실망스런 표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에 능숙한 교사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 주렴."이라고 말해 주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라는 면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반응을 보이면 학생들은 또 다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답변에 대하여 "○○계 생각한 것은 ◇◇면에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라고 많이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그 지점에서부터 '배움'이라는 것을 느껴 가기 시작한다.

### 열쇠 10 : 협동적인 학급운영 기술

분명히 학급운영을 해 나가는 데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는 꼭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각종 준비물들과 그것의 활용, 다양한 자료와 도구들의 준비 및 활용, 각종 규칙과 약속들, 바람직한 평가와 보상의 기술 등은 어떤 식의 학급운영에서든 모든 활동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토의·토론 수업도 그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무조건 자리를 마련하고 주제만 던져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토의·토론 활동을 해 나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물(예를 들면 '말하기 카드'나 '다시 말하기 카드' 등)이나 활동지, 활동 방법 안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담긴 소재나 갈등, 발생한 현안 문제들을 토의·토론 수업 활동의 재료로 삼

아 학급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이 어우러진 통합적 학급운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시각 및 재구성 능력,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에 대한 고민, 원활한 토의·토론 활동을 위한 각종 규칙·약속을 마련하고 실천방안 마련하기 등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 협동학습으로

## 토의·토론 준비하기



**필**자가 협동학습을 처음 만났던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리석음’이라는 한 낱말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협동학습을 수업 방법으로 바라보면서 “왜 잘 안될까?” 하는 고민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밑바탕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협동학습 구조만 적용하면 협동학습이 저절로 되는 줄로만 알았던 그때.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을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를 반성해 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변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10년 넘게 협동적 학습운영을 해 오고 있지만 필자는 협동학습이, 협동적 학습운영이 어렵고 힘들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보냈지만 그 세월이 결코 아깝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갈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 또한 그 세월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 왔고, 부끄러울 정도이기는 하지만 나 스스로는 많은 성장을 해 왔고,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나날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내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의 반성적 고백을 통해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 나가하고자 한다.



## 1 만남과 설렘과 난관, 그리고 교훈

“협동적 학습운영(아니 어떻게 보면 협동학습)만으로도 힘든데 이제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 수업까지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협동학습과 토의·토론 활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깊은 곳(초·중·고교, 대학, 각종 강연, 직장,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토의·토론 프로그램, 인터넷 등)까지 파고 들어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힐 정도가 되었으며, 접하는 것마다 활발한 협동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대학 입시에서도 논술이라는 영역이 등장하여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래서일까, 학교 현장에서는 토의·토론 활동을 강화하라고 많은 공문과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거나 형식적인 모습만(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곱씹어 보고 넘어갈 일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왜 그렇게 토의·토론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회가 토의·토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상투적인 이유는 분명 아닐 것이다. 필자는 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 본다.



“토의·토론 활동을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면 학습운영(쉽게 말해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1 협동학습과의 만남, 그리고 설렘

협동학습을 처음 만났던 10년 전의 그 충격과 설렘. 그 기억은 아직도 신선하게 가슴 한곳에 남아 있다. “그래, 내가 갈구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라고 외쳤던 협동학습. 이를 위해 그동안 모아 놓고 연구해 두었던 모든 학습운영 자료와 틀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지웠다(필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우의 교육사랑”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자료를 공유해 왔었다. 하지만 그 자료들과 홈페이지의 모든 것들을 망설임 없이 날려 버렸다. 지금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우연한 기회에 만났던 약 3시간 정도의 짧은 협동학습 강좌였지만 내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 자리를 나서자마자 시내에 있는 대형서점으로 가서 손에 잡았던 것이 바로 Kagan의 저서인 『협동학습』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이 읽어 나갔다. 읽어 나가면서 아이들과 하나둘씩 펼쳐 나갈 활동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무척 설레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내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바로 협동학습 구조였다(그 강사도 그것을 중심으로 강의해 주었고, 너무나 좋다는 말과 함께 협동학습의 화려함을 보여 주려고 많은 애를 썼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위대해 보였다).

그렇게 시작한 나의 협동학습은 처음에는 잘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막막함으로 내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달려드는 위협들(각종 잡무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적, 개인적 일들)이 협동학습에 대한 나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협동학습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의 처절한 패배는 오히려 나를 자극하여 협동학습과 한판 씨름을 벌이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협동학습 관련 서적들과 각종 자료들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내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만족과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 나갔다. 그러기를 약 2년. 그동안의 경험을 보다 확실히 다져 갈 생각으로 과감히 도전했던 것이 바로 수업개선 연구교사였다.(2002년)

그러나 그때의 겁 없는 내 도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그때의 뼈아픈 경험이 나의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꾸어 놓게 되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협동학습에 대한 짧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동학습 구조의 방법론적 적용과 체계도 없이 사회적 기술 적용을 흉내만 내는 데 급급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깨닫는 데 1년이 걸렸다. 그때의 연구교사 보고서도 실패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보고했다(아마 연구교사로서 연구 활동이 실패했다고 보고서를 낸 교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것이다).

## 1.2 협동학습, 너무 어려워요.

처참한 실패를 바탕으로 깊이 깨달았던 것은 “협동학습, 너무 어려워요.”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생들이 나의 의도 및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움직였던 것이었다. “왜 협동하고 서로 도와 가면서 활동하러는데, 그게 그렇게도 안 될까?”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만 치고 있었던 것이 그때의 내 모습이었다. 그 원인을 찾는 데 거의 한 학기를 다 보냈다. “왜 그들은 서로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서로 다투기만 하려는 것일까?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속상한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참을 고생하였다. 그러면서 나의 학급운영에 대한 자세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협동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상점과 별점으로 길들여 가며 경쟁을 이용해 통제하려고만 했고, 학급이라는 아이들 삶의 큰 터전을 협동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참삶이 가득한 교실로, 시험과 경쟁, 답답한 학원과 공부,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과 비교육적인 매체로부터 벗어나 꿈을 꾸기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삶이 묻어날 수 있는 교실로, 학급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 줄 수 있는 교실로 만들지 못한 나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데 약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 1.3 협동학습을 통해 ‘학급운영’에 대한 깨달음을 얻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아픔과 반성을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학급운영에 있어서의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학습을 나에게 맞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 협동학습도 학급운영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필자는 협동학습을 학급운영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재구성하며 ‘협동적 학급운영’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학급운영에 있어서 완성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때 세웠던 내 나름대로의 학급운영에 대한 취지는 이런 것이었다.



### 가 가치를 지향하는 학급운영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옳은 것이라면 과감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용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알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무서움 혹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다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과감히 불의에 맞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임에 비해 용기 없는 사람은 다만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다. 그 차이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를 갖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과신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인정)하여 다른 선택을 한 이들과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급운영을 꿈꾼다. 하지만 꿈은 꾸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이 꿈에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반성해 나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 나 다 함께 잘 살기를 지향하는 교육으로서의 학급운영

다양한 가치와 삶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다 함께 잘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운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예의(공감과 존중, 관심과 이해, 신뢰와 조화의 마음)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협동’을 지향한다(협동이라는 가치의 가장 밑바탕에는 ‘상호존중’이 자리하고 있다).

### 다 자기 삶에 주인이 되는 교육으로서의 학급운영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참모습을 바탕으로 자기 삶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급운영을 지향한다.<sup>1</sup>



1 '자기 삶에 주인이 되는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우, 2009, pp. 20~22를 참고.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능력을 찾은 학생들은 점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자기 삶에 주인이 되는 교육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참된 삶에 주인이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참된 삶과 공동체의 평등한 구조를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라 학급운영의 재개념화

학급운영의 제1요소는 교수-학습 활동(수업)이다. 그리고 제2요소는 학급 활동(수업 이외의 모든 활동)이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급운영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학급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이들 스스로가 제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참된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교육, 이웃,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학급운영, 소박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과 관계, 말과 글과 행동, 의식주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사고방식과 학급 문화, 교과 교육 활동, 모둠살이, 일과 놀이, 사상의 표현과 자유 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중심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과 철학이 녹아들어 있는 협동적 학급운영을 위해 협동학습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인식하고 1년이라는 전체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 1.4 협동학습과 토의·토론의 만남

필자의 생각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느꼈을 때,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회 조직을 위해 직무연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그런 외중에도 협동적 학습운영을 해 나가면서 협동학습 구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해 오던 중 우연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망할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토의·토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순간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협동학습 구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토의·토론 활동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또다시 그길로 서점을 찾아 토의와 토론 관련 서적들을 몇 권 구입하여 탐독하기 시작했다. 한 권 한 권 읽어 나갈수록 협동학습과 토의·토론 활동이 서로 ‘뉘는꼴’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고, 그 생각을 교육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교수-학습 활동 속에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생각한 바를 실행으로 옮기며 시행착오를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 1.5 협동학습과는 또 다른 토의·토론 수업의 어려움

토의·토론 수업을 고민해 나가면서 협동학습 구조가 그 속에 어떻게 스며들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하던 중 충분한 가능성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난관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토의는 그럭저럭 되고 있는데, 토론은 잘 안된다는 것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또다시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토의·토론’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 수준과 이해 정도였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토의’는 결론을 내는 것, ‘토론’은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논쟁을 벌이는 것(때에 따라서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

었으며, 교수-학습 활동 속에서의 토의·토론이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입장이 더 옳은가를 판정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그 이후로 일반적인 토의·토론 활동과 달리 교수-학습 활동(수업)으로서의 토의·토론 활동이 갖는 목적과 그 위치, 효과, 토의·토론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 정의 및 다양한 토의·토론 활동 사례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름대로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그 내용은 이미 1부 2장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 1.6 닦은꼴은 결국 합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또다시 토의·토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판단한 나는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토의·토론을 시작하였다. 실생활의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교실로 끌어 들여 협동학습 구조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토의·토론 수업을 해 나갔다(실제 사례는 3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나도 조금씩이나마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역시 협동학습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며 협동학습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한계는 있었다. 특히 패널 토의·토론, 찬반 대립 토론을 할 때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딱 막혀 있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듯한 느낌을 지울 길이 없었다. ‘역시 협동학습이 만능은 아니구나. 협동학습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협동학습과 토의·토론이 비슷한 점은 많지만 결국 같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닦은꼴은 결코 합동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다.

### 1.7 토의·토론 수업,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결국 협동학습과 토의·토론 활동의 ‘다름’을 깨달은 나는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교과서 재구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한 토의·토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협동학습 구조를 배제시킨 토의·토론을 할 것인가)을 달리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협동학습 구조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찬반 대립 토론, 패널 토의·토론 등의 출발점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찬반 대립 토론, 패널 토의·토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가르치는 것에 두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교

사가 토의·토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토의·토론 수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경우 혹은 아이들이 토의·토론의 방법과 절차, 관련 규칙이나 기술 등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경우 차라리 일제식 수업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토의·토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가 토의·토론 수업을 잘만 계획한다면 학생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와 규칙들만 알아도 받은 성공한 것이며 나머지는 실제로 수업 활동을 해 나가면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8 산을 넘고 넘어 만난 또 다른 산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내용과 방법, 절차와 규칙 등을 충분히 지도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패널 토론을 시도해 보았는데, 절반의 성공을 맛보게 되었다.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처음 시도했던 수업에서 학생들이 비교적 잘해 주었고, 만족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실패라는 결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산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그것도 최근에. 그 산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산은 참여한 패널들이 모두 학급에서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었다는 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이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산은 달랐다).

두 번째 산은 토의·토론에 대한 절차나 방법, 규칙 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 높은 산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에 비하여 더 험준하고 높았다고 느꼈다. 그 산은 바로 “아는 것(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없는 우리 아이들(양적·질적 독서의 부족, 게임·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된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흥미와 관심 부족, 객관적 지식의 암기를 통한 경쟁에 내몰려 전전긍긍하며 여러 학원을 기웃거리느라 다양한 경험 쌓기를 하지 못함)”이라는 점이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들의 일기를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의 일기를 보면 삶은 의미 없는 것들뿐이다. 늘 바쁜 일(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그만큼 자녀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자녀에 대한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일보다 떨어진다든 증거일 수도 있으며,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로 인해 아이들 곁에 머물지 못함으로써 존재감마저 사라질 정도가 된 부모님, 형제가 있더라도 몇 안되고, 그마저도 서로 다른 계획에 따라 동선을 달리하여 움직이며 늘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출산율 저하로 인

해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원을 전전공공하다가 집으로 가면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대화가 부족하고 식구들끼리 자주 어울릴 만한 계기와 시간들을 만들지 못하여 늘 홀로 지내는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편부·편모 아래서 자라면서 각종 위협과 폭력 및 무관심에 노출된 아이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불쌍한 아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꿈과도 같은 일이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딱히 없을 수밖에 없다. 고작해야 어쩌다 한 번 놀러 간 일 외에는 늘 먹고 자고 놀고 PC방이나 집에서 게임하고 학교 와서 의미나 목적도 없이 놀다 가거나 친구 만나러 혹은 그냥 가야 하기에 학원에 가서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는 것이 그들 삶의 전부인 것이다. 게다가 어쩌 보면 학교도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딱딱한 교육과정과 줄세우기식 교육 정책, 전시행정 중심의 학교 교육, 늘어나는 잡무로 인하여 너무나도 바쁜 교사들, 단순 지식 암기 중심의 팔호 채우기식 교육과 시험...

#### 관련된 또 다른 문제

요즘 우리 아이들의 표현력(말과 글)을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짧고, 감상과 느낌이 간단하며(“좋았다. 재미있었다. 짜증났다.” 등)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끼리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생활 속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가꾸어 나가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 즐기고 기억하려 하며, 그로 인하여 자존감·자신감·사고력·관찰력·문자 해독력·기억력 및 판단력·언어적 표현력·집중력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들은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필자가 바라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은 바로 ‘자존감’의 회복에서부터라 생각된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영향을 주어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학급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최우선적 과제로 두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주장)을 말하라고 하면, 토의·토론을 하자고 하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들이 되어 버렸다. 당연한 결과였다. 토의·토론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툭툭 던지는 수준의 낮은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경험적 사고에 바탕을 둔) 자신만의 입장(생각)이 필요한데, 가꾸지 못한 삶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갖거나 세우지 못하여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이 토의·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 올 것인지.

### 1.9 그래도 꼭 해야만 하는 토의·토론 수업

큰 산이 가로막았다고 하여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은 그래서 안 된다. 하루아침에 아이들의 삶을 가꿀 수는 없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 걸음들이 보태어져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토의·토론 수업을 해 나갔더니 달라진 아이들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이런 것들이었다(순식간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교사가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땀과 열정을 쏟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상황에 따라 진지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말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아이들, 자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상대방의 설득에 대해 인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아이들, 과거의 ‘어쩌라구!’ 식 언행을 줄이고 ‘부탁해, 미안해, 좋았어!’ 를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아이들, 조금씩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가며 마음의 문을 열어 가는 아이들, ‘왜’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움과 앎’의 기쁨을 함께 누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 갔다.

### 1.10 협동적 학급운동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

조금씩 변해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토의·토론 수업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변화된 아이들의 삶과 모습은 협동적 학급운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꾸준한 사회적 기술의 지도 및 활용,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협동적 학급운영(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나아가기 위한 학급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의 통합 및 재구성), 효과적인 협동학습 구조의 적용과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한 요소가 하나로 융합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교사로서 두 가지 소중한 '배움(깨달음)'도 얻었다.



첫 번째 배움 : (누군가 혹은 스스로)삶을 가꾸어 주어야 경험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을 정립하여 주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두 번째 배움 : 만들어 낸 주장에 살(근거)을 붙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알아야 하는데, 이는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얻은 값진 교훈은 곧바로 필자의 교실에서 다양한 독서교육 활동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 궁금한 점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이후부터 필자는 협동적 학급운영 속에서 토의·토론 수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 줌과 동시에 아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학습 주제나 사회적 현상 및 문제 상황 등을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그들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종합해 내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연구·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망설여 왔던 개인적인 고민(협동학습 관련 서적 집필 : 이상우, 2009)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2009년 8월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 탄력을 받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또 한 권의 책으로 담아 내리라 마음먹어 휴식 없이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 달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집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를 위한 준비

지금까지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의 실재를 위해 필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나뉠대로 깊이가 있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후부터는 필자가 현장에서 펼쳐 나갔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의 준비 활동에 대하여 안내해 보고자 한다.

### 2.1 독서는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의 에너지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주장(생각)에 살(근거)을 붙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독서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곧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이 바로 ‘10분 독서’ 활동과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선생님,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일이었다. ‘책 읽어 주는 선생님’의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더하여 아이들과 함께 10분 동안만이라도 차분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비쳐진 많은 선생님들의 모습은 공부시간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 업무를 보시느라 바쁜 모습, 컴퓨터 앞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보시고 계신 모습, 피곤에 지쳐 쓰러진 모습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비록 짧기는 하지만 매일 이어지는 10분 동안의 독서하는 진지한 선생님의 모습은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많은 아이들의 일기에 이런 글들이 올랐다. “우리 선생님도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신다. 아침마다 우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계신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가끔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 말을 전하곤 한다. “선생님, ○○가 그러는데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많이 읽으신다면서요?”라고 말이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그 모습이 그렇게 신기했나 보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도 무척 진지해지고 조용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책을 읽고 있는데 소란을 피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니와 그 시간에 선생님도 책을 읽고 계신데 감히 누가 그를 방해하려고 하겠는가 말이다. 사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매일 10분 정도 책 읽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 모습을 보여 주기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이리도 힘든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 주는 일은 별것 아니라 생각한다.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호흡하는 일,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들의 표정을 읽어 주고, 부드러운 말 한 마디로 마음을 만져 주는 일,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 주는 일(어제와 달라진 모습 등),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고 안아 주는 일, 때로는 그들의 놀이에 참여하여 함께 웃어 주고 실수도 해 주고, 선생님도 못하는 것이 있음을 솔직히 보여 주는 일, 아이들의 관심사에 함께 동참해 주는 일 등이 아이들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어 주는 일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아침에 출근하여 제일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 스위치를 누르고, 모니터만 쳐다보는 일(인터넷을 뒤지고 다니는 일, 아주 급한 업무를 보거나 꼭 필요한 공문을 처리하는 일)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침 시간을 가져 볼 것을 적극 권한다.(설령 급한 업무일지라도 잠시 뒤로 미루어 두기를 권한다. 뒤로 미루었다고 해서 큰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삶보다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본 것이 바로 2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 수업 시간을 활용한 '독서 카페'의 운영이었다.

#### 자랑 · 즐거움 · 보람반 독서 카페 운영

- (1) 토요일 수업시간을 적극 활용한다.
- (2) 독서 활동을 1시간 동안 진행한다.
- (3) 독서 시간에 웰빙 차를 교사가 준비해 둔다(아이들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인스턴트 음료는 자제하도록 한다).
- (4) 독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도록 한다.
- (5) 독서 활동 이후에 그날 읽은 분량에 대한 독후 활동을 이어서 진행한다(독서 기록장 쓰기, 팝업 북 만들기(북 아트), 독서 경험 나누기, 골든벨 독서 퀴즈, 독서를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등).

필자의 생각으로 볼 때 독서 카페 운영 및 10분 독서, 책 읽어 주고 책 읽는 모습 보여 주기 등의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특히 아이들은 ‘독서 카페’ 운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이 1년간 꾸준히 지속되자 아이들의 독서 능력(양적·질적)은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학습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sup>2</sup>

## 2.2 독서를 위한 고민

책읽기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는 공부 가운데 하나 일 것이다(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은 특히 그렇다). 필자는 책읽기가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을 키우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배우도록 해 주며, 아이들 스스로 궁금한 것을 찾아 깨우쳐 나가도록 해 주는 힘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독서를 통해 힘을 얻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마음을 살찌우는 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앞에 놓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필자는 학급에서의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런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의·토론 수업’인 것이다.

처음에 아이들 앞에 서서 책을 읽으라고 말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왜, 무엇을, 어떻게’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답을 갖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2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 그들의 스키마를 변화시켜 나간다. 스키마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총체로서 ‘사전지식 혹은 배경지식’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보통 우리는 ‘이름 만큼 보이고 본 만큼 안다(새로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살피고자 할 때 특히 많이 적용되는 말이다.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전에 사전학습으로 교실에서 관련된 내용이나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살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하나의 원리를 이해한 후 그를 다른 유사한 현상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쓰이는 말이다. 동기유발전략에서는 보통 이를 이용하되 기존 스키마를 벗어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곤 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키마 이론은 이와 관련이 깊다.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학습이론의 주된 관점을 살펴보면 ‘학습이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스키마)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학습이 시작될 때 교사가 적절한 사전학습 상태의 점검을 통해 이미 형성된 학생들의 스키마를 보완 및 활성화시킨 후, 효과적인 동기유발전략을 통해 기존의 스키마를 새롭게 알아 나가기야 할 내용에 적절히 연결시켜 주지만 한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잘 융합시켜 새로운 스키마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배운 지식(스키마)은 학생들에게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게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①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날(정보화 시대)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②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막연하게)좋은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야 한다.

③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많이 읽기, 내용을 잘 이해하며 읽기, (무작정)창의적으로 읽기 등.

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읽기?

빠르게 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빠르게’ 지식과 정보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독서가 과연 ‘빠르게’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닌데!” 하고 고개를 흔들게 된다. 오히려 ‘빠르게’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 하면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 더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 사례일까?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보다는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훨씬 빠르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왜일까?

나 논술 대비를 위한 책읽기?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생겨난 풍속도가 바로 (독서)논술이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논술 관련 학원을 다니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도 먼 훗날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그때가 되면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논술 학원을 다니고 있다. 언젠가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교사) 논술 학원을 왜 다니니?

(학생) 글을 잘 쓰려고요.

(교사) 글은 잘 써서 뭐 하게?

(학생)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엄마가 그렇게 해야 한대요.

(교사) 그러면 대학에 안 가면 논술 학원을 안 다녀도 되겠네?

(학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난감한 표정으로 웃음)

(교사) 논술 학원에서 주로 뭐 하니?

(학생)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도 하고 글도 써요.

(교사)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인가?

(학생) 네, 맞아요.

(교사) 음, 그렇구나. 그러면 논술을 하지 않는다면 책은 안 읽어도 되겠네.(쓴웃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왠지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움만이 훑훑 떠올랐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논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술’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왜 책을 읽지?”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논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수 많은 아이들에게도 그 답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처럼 그냥 웃고 넘길 일인가?

한편, 어떤 일에 목적이 정해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 선을 긋고 경계를 정하게 되며, 기술적인 읽기 요령과 공식과도 읽기 방법이 결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논술이라는 목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꼭 읽어야 할 책, 읽을 필요가 없는 책, 글을 읽는 방식과 요령, 글을 읽을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학생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물론 글쓰기는 더할 나위 없는 일이고, 다른 것을 떠나서 몇 년 뒤에 있을 일(대입 논술)을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이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과연 재미는 있는 것일까? 게다가 논술이라는 목적을 벗어난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글을 읽을 것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다 독서기록장을 채우기 위한 읽기?(과제를 위해, 수상을 위해)

독서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독서왕 선발 및 상장 수여. 그 기준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그냥 무작정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상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상장을 받기 위해 책을 읽고, 책

을 읽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 상장을 주지 않는다면 책을 읽히지 않을 것인가? 요즈음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책읽기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적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적으로만 독서를 하다 보니 읽은 책은 많은데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은 책의 양만 가지고 시상을 한다. 그게 학교의 현실이다. 어찌 보면 잘못된 독서 습관을 갖게 된 주원인은 학교일지도 모른다. 학교가 양적으로 하는 독서 습관이 들도록 자꾸만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라** 책은 왜 읽는가? → 모두의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함!

지금까지 잘못된 독서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다. 필자가 볼 때 바람직한 독서는 논술이나, 상장이거나, 단지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자신의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으로서의 독서, 꿈꾸어 온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 자신 앞에 놓인 고민과 문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읽기, 이것이 바로 삶을 가꾸고 마음을 살찌우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책읽기인 것이다.

**마**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독서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하나] 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을 믿는 것**

책을 읽는 현실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책이 가진 무한한 힘을 믿는 것에서부터 독서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 대한 믿음

책은 사람들의 생각을 키워 주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며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돌]** 독서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독서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필자도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 지금도 많은 책을 읽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마음을 살찌우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서는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독서 자체의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도록 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셋]** 책 속에 길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교사는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책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가 깨닫도록 해 주어 책 속에 행복해지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결국 먼 미래에 있을 논술과 대입이라는 부담스런 이유로, 상장이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기보다는 책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과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책 속에 들어 있는 길을 깨닫도록 해 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학급운영의 과제라는 것을 교사가 먼저 깨달아야 아이들에게도 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바**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만드는 토의·토론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임을 알면서도 몸은 마음처럼 쉽게 따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구조화시켜야만 한다.

**사례 1**

교사가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책을 매일 조금씩 읽어 주다 보면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진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곧바로 도서실로 달려가 책을 단숨에 끝까지 읽어 버리고 만다. 아주 훌륭한 동기유발이 아닐 수 없다.

## 사례 2

수업시간에 감동적인 내용이 담긴 책의 일부를 흥미진진하게,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읽어 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 책을 찾아 읽고야 만다.

## 사례 3

수업 준비 차원에서 과제를 효과적(흥미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으로 제시하면 아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찾아 읽고자 한다.

## 사례 4

배움의 과정에서 만난 도전적 과제나 문제점,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선택이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은 다양한 책을 기꺼이 찾아 읽고자 한다.

특히 '사례 4'와 같은 활동은 토의·토론 활동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들이 토의·토론 수업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알아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토의·토론 수업은 ㉠ 주제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으로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주제는 실생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들이 책 속에 들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됨), ㉡ 자신의 선택이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 보는 감정들(아쉬움, 성취감, 도전의식, 많은 반성들)이 아이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크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독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손색이 없는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토의·토론 수업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토의·토론 수업이 독서 동기 유발 및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교실 속에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수준, 동기, 도전의식, 수업 참여도, 과제 해결 능력, 책임감 등이 높은 수준에서부터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토의·토론 수업 한 가지만으로 아이들을 독서 활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의·토론 수업은 다른 어떤 학습 방법보다도 아이들이 즐겁게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활동인 만큼 아이들에게 독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독서 습관을 형성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자신 있게 권한다.



**사** 무엇을(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을 말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오덕 선생님의 말을 빌어서 대신하고자 한다.<sup>3</sup>

- ①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책
- ②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책
- ③ '자기만 잘 살고 즐겁게 지내면 그만'이란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책
- ④ 일하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책
- ⑤ 민주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책
- ⑥ 자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심어 주는 책
- ⑦ 바르고 깨끗한 우리말로 써 보인 책

한편 폴 아자르는 좋은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sup>4</sup>

- ① 나는 예술의 본질에 충실한 책을 사랑한다. 그것이 어떤 책인가 하면 직관에 호소하고 사물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힘을 어린이들에게 주는 책, 어린이들도 읽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책, 어린이들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어 평생 가슴속에 추억으로 간직되는 책, 그런 책 말이다.
- ② 나는 또 어린이들이 즐겨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그대로 담은 책을 사랑한다. 온 세상 삼라만상 속에서 특히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추어 선택된 것, 어린이들을 해방시키고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이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린이들한테 덤벼들어 그들을 현실 세계의 굴레로 얽매어 버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는 신비의 세계, 그런 것을 어린이들에게 주는 책을 나는 사랑한다.



3 어린이도서연구회, 1991, pp. 73~74.

4 Paul Hazard, 1999, pp. 59~63.

- ③ 어린이들에게 감상이 아니라 감수성을 자각시켜 주는 책, 인간다운 고귀한 감정을 어린이들의 마음에 불어넣는 책, 동식물의 생명뿐 아니라 삼라만상의 생명을 모두 중시하는 마음을 심어 주는 책, 천지의 만물과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 속에 있는 신비스러운 것을 헛되이 하거나 소홀히 하는 마음을 결코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지 않는 책, 그런 책을 나는 사랑한다.
- ④ 놀이라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는 책, 지성과 이성을 단련하는 것은 반드시 당장에 이익을 낳거나 실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별하고 있는 책, 그런 책을 나는 사랑한다.
- ⑤ 나는 지식을 주는 책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책이 무엇이든 쉽게 깨닫게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감쪽같이 어린이들을 유인해서 즐거운 시간을 낚아채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실제로 엄청나게 수고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그런 방법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하겠다. 나는 어설픈게 다른 것으로 가장한 문법이나 수학이 아니라 솜씨 좋고 적절하게 지식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쓰여진 책을 사랑한다. 어린이 영혼의 싹을 짓밟게 버리는 주입식 책이 아니라, 영혼 속에 지식의 씨앗을 뿌리고 건강하게 기르려는 그런 책을 사랑한다.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만물의 척도로 삼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책, 즉 지식의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책을 사랑한다.
- ⑥ 내가 사랑하는 책은 모든 인식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곧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인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는 책이다.
- ⑦ 내가 사랑하는 책은 높은 도덕성을 지닌 책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도덕성은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두 닢을 주었다고 해서 자신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껌뻌한 근성의 도덕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진리, 인간의 영혼을 생기 있고 분발하게 하는 진리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책을 나는 사랑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성실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고, 설령 다른 사람이 보답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득이 될 만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책, 선망이나 시샘이나 탐욕이 얼마나 추하고 저열한 것인지 보여 주는 책, 나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신뢰를 북

돈는 역할을 하는 책을 사랑한다.

좋은 책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말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좋은 책은 ‘사람들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책들은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독자가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이 아니라 하찮은 종이몽치에 불과할 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도록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책을 읽어야 할 필요와 동기를 제공해 주지도 않은 채, 책을 읽으라고 강요만 하는 것은 아이들을 진흙탕 속에 넣어 두고 옷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한다면 책을 늘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과 책을 보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교사 자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토의·토론 수업을 적극 권하고 싶다.

끝으로 “교육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던가!”라고 말한 다니엘 페나크의 ‘무엇을 어떻게 읽든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 10가지’를 소개해 본다.<sup>5</sup>

- 책을 읽지 않을 권리
- 건너뛰어 읽을 권리
-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 다시 읽을 권리
-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 보바리즘<sup>6</sup>을 누릴 권리
-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sup>5</sup> Daniel Pennac, 2004, pp. 193~226.

<sup>6</sup> ‘오로지 감각만의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충족감’에 다름 아니다. 즉 상상이 극에 달해 온 신경이 떨려오고 심장이 달아오르며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출되는 가운데 주인공의 세계에 완전 동화되어, 어처구니없게도 대뇌마저 잠시나마 일상과 소설의 세계를 혼동하기에 이르는……(Daniel Pennac, 2004, p. 212).

- 소리 내서 읽을 권리
-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⑧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잘 !? 그래도 여전히 남은 고민과 걱정 한 가지는 바로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누구도 딱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방법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필자도 여기저기에서 배웠던 방법 및 필자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서 좋은 반응도 나오고 있어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탐구를 위해서는 같은 부류의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빠진 부분은 다른 저자가 쓴 책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책을 달리하면서 여러 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 오게 된다.
- 어떤 종류의 책이든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주로 신경을 써라.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시디 한 장 분량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른다고 하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만은 꼭 기억하도록 하고, 책을 읽을 때 최대한 내용의 이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좋다.
-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낙서도 하고, 포스트잇도 사용하라.(여백 활용)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줄만 긋는 것보다는 줄을 긋게 된 이유, 생각해 볼 점, 공감이 가는 점, 이해되지 않는 부분, 더 생각해 볼 점 등을 옆의 공간에 써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포스트잇과 같은 쪽지에 자신의 생각을 써서 붙여놓으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데 있어서도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체계화하면 더 큰 도움이 된다. 필자도 최근(2008년 초)에 접한 서적<sup>7</sup>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호



<sup>7</sup> Stephanie Harvey & Anne Goudvis, 2008, p. 109 참고.

를 만들어 책을 읽어 오고 있는 중이다.

### 참고

#### 필자의 사례

- 💡 새로운 아이디어
- ⑤ 정리하기
- ☆ 중요한 부분(중심 생각) — 정도에 따라 개수를 달리 표시함
- ? 궁금함, 이해 안 됨
- ④ 생각해 보기(고민)

-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능한 한 자세를 바로 하고 읽어라.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만큼 집중력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읽은 내용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라. 혼자 읽은 것에 그치지 말고 읽은 내용 중 감명받은 부분이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읽은 내용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남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읽은 내용을 가공해서 재활용하라. 자신의 일이나 과제, 현재 몰두하고 있는 활동에 선택한 아이디어로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교수-학습 활동과 독서 활동과의 연계성을 매우 중시하고, 가공을 위한 기본 자료로 독서 기록장 쓰기, 한 줄 메모(독서한 내용에 대한) 등을 활용하고, 아이들에게도 지도하고 있다.
- 반복해서 읽어라. 요즈음 학생들이건 어른들이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를 보기가 매우 드물다. 좋은 책은 자주 읽어서 전혀 해로울 게 없다. 오히려 읽을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책들이 가진 장점이다.
-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라. 어떻게 보면 요즈음 같은 바쁜 시대에 책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필자는 책 읽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가능한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 하루에도

매우 많은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아침 자습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점심시간, 수업 시간에 과제 활동을 먼저 마무리한 후 남는 시간, 쉬는 시간 등 우리 주변에는 자투리 시간이 널려 있다. 어찌 보면 흐름이 끊어져 내용 파악이 힘들 수도 있지만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 상상을 즐기며 읽어라. 책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다. 귀로도 읽어야 하고, 머리로도 읽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을 최대한 많이 동원할수록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진다. 동화나 소설 등의 책을 읽을 때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어 간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라.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긴다. 왜 이런 글이 나오게 되었을까? 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을까? 작가는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뒤에는 어떤 글이 이어질까? 등.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글을 읽게 된다면 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억지로 읽지 말라. 무엇보다도 필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억지로 읽게 되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문에 학교에서도 되도록 간간한 독서 지도를 하지 않으려 하고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이 점 하나만큼은 꼭 강조하곤 한다. 억지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책을 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억지로 아이들에게 책을 강요하는 것(독서 기록장을 채우기 위해, 상장 수여를 위해,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 위해)은 오히려 아이들이 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자.

필자는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소개한 바 있는 『독서 몰입의 비밀』(Stephanie Harvey & Anne Goudvis,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 읽으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한 번 정도 읽는 데에서 그친다면 별로 도움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2.3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갖도록 하기 — 6단 논법 지도

최근에 '6단 논법'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단 논법은 영국인 Stephen Toulmi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Toulmin은 1958년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이 <논술의 활용(The Uses of Argument)>(1958)이었다. Toulmin은 그 논문에서 전통 논리의 쓸모없음을 지적하는 공격적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실용 논리'이고, 그의 실용 논리 모형에는 모두 여섯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Toulmin의 실용 논리를 6단 논법이라 부르고 있다. 그 당시 Toulmin은 영국 학계의 냉대와 지탄을 받기도 하였지만, 미국에 건너가서는 1990년 미국의 토론학회가 토론 분야의 탁월한 학자와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큰 상을 받게 된다. 이 6단 논법은 말하기, 글쓰기 등의 의사소통 과정에 활용하면 그 효과를 뚜렷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항공대 김병원 교수가 우리나라에 소개하였다.<sup>8</sup>

한편, 6단 논법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반드시 그 순서대로 사고나 표현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바꾸어도 된다.
- ② 6단계를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4단, 5단 논법으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
- ③ 6단 논법만으로 모든 사고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3단 논법 등의 활동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단 논법을 체계적으로 끌어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6단 논법으로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글로 써서 논술로 만들어 보고, 다시 그것을 말로 해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다



<sup>8</sup> 김병원, 2001, *생각의 총돌, 자유지성사*. 6단 논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책 한 권을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희숙, 2007, *토론하는 교실, 노브*. 이 두 권의 책은 토의·토론 및 6단 논법의 공부와 지도를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다.

## 1단계 안건

**설명** 어떤 상황이 일어난 상태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맞설 수 있는 주제이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이면 된다.

**예시** “컴퓨터 게임, 해도 좋은가?” “TV를 없애야 하는가?”

## 2단계 결론

**설명** 찬성인가 반대인가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먼저 내린다.

**예시** 나는 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다. 나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

## 3단계 이유

**설명** 2단계에서 결정한 ‘결론’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왜 찬성하는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유는 반드시 안건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큰 생각’ 한 가지면 충분하다.(이유가 옳으면 결론도 옳다)

**예시** 그 이유는 ~~이기 때문이다.

## 4단계 설명

**설명** 3단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계이다.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계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예시** 설명 방법 : 실험 결과, 통계, 신문 보도 자료, 인터넷 자료, 직접 경험,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 신념, 비교나 비유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5단계 반론 꺾기

**설명** 반대 측에서 말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를 미리 예상하여 꺾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내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반론)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그에 대한 반박이나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는 것을 말한다.

**예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다.

## 6단계 정리

**설명** 어떤 일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찾아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예외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란 찬성과 반대 모두를 포함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양쪽 모두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를 말한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야 비로소 모든 단계가 완성된다.

**예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물론 ~~라는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다.

※ 토론의 본질은 이유와 설명이기 때문에 6단 논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한 ‘3단계’와 ‘4단계’라 할 수 있다.